



신앙의 눈으로 바라 보십시오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칠십인 회장단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 2006년 3월 5일 · 브리검 영 대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곳 메리어트 센터로 돌아와 오늘 밤 함께 하고 있는 이 많은 청중을 보니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전세계 도처의 여러 건물에 모여 있는 수만 명, 아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베이트먼 자매와 저는 지난 주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머물렀는데 그 곳 회원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야 방송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 저곳 어디에나 모여 들었으며 이는 그들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2005년 8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과 ...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벗들에게 물몬경을 읽거나 다시 읽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그 권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욱 충만한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굳센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 들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¹

선지자의 권고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광범위했습니다. 모든 곳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비행기에서, 점심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후반기에 물몬경을 읽은 사람의 수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 친구가 뉴욕과 솔트레이크시티를 오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가 좌석들 사이를 지나며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물몬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중간쯤에 오자 통로를 사이 두고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모두 물몬경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디를 읽고 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친구는 그 두 사람이 모두 같은 페이지를 펴고 있는 것을 보고는 혼자 웃었습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과 저는 지난 11월에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2천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나 아크라 스테이크센터에서 일요일 저녁에 영적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스코트 장로님이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물몬경을 읽고 있는지 질문하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열후 후, 탄자니아의 다 에스 살람에서 열린 영적 모임에서 저는 200명의 회원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약 2/3가 손을 들었는데, 저는 모임이 끝난 후 나머지 1/3의 대부분은 구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에서 2005년에 물몬경을 읽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대부분이 손을 드셨군요. LA, 뉴욕, 프랑크푸르트, 동경, 상파울로,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오늘 저녁 여러분이 모여 계시는 수많은 장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권고에 대한 참으로 특별한 반응이 아닙니까.

저도 그분의 권고에 따라 물몬경을 읽었고 힝클리 회장님께서 주신 약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더욱 강하게 느꼈으며 더 굳건한 간증을 갖게 되었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는 결심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지난해 물몬경을 읽으며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물몬경에 대한 간증이 강화됨

예전부터 저는 엘마서 5장과 32장이 신앙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다시 물몬경을 읽고 나서야 그 두 설교가 얼마나 각각의 청중들에게 맞도록 잘 준비되었는가 하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장에서 엘마의 청중은 제이라헤물라의 성도들이었습니다.(엘마서 5:2 참조) 이 도시는 교회의 본부였으며 따라서 교회 회원들이 교리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32장의 청중은 가난에 허덕이는 조램인들이었으며 이들은 부자들이 회당에서 쫓아낸 자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엘마서 31:12~17 참조) 비록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배우기를 원하였지만 또한 복음의 기초를 배워야 하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엘마가 제이라헤물라의 성도들에게 한 5장의 말씀은 깊이가 있고, 또한 복잡합니다. 그가 던지는 일련의 질문은 청중이 교리에 익숙하고 성신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질문들은 별 의미가 없고 대답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의 목적은 회원들이 주님과 그분의 속죄의

권승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이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들어 보십시오(엘마서 5:14~15 참조):

-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 너희는 너희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
-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느냐?
- 너희는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고대하며 바라보느냐?

이 질문들을 음미하고 그에 대답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해 알고 믿으며, 물과 불에 의한 죄사함을 경험했고, 성신의 열매를 맛보았으며, 육신이 문자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막 개종한 성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반면 엘마는 조람인 구도자들에게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는지를 가르칩니다. 32장의 설교는 신앙을 키우는 과정을 참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므로 오늘날 선교사들이 구도자에게 간증을 키우는 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 과정은 “믿기를 바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심어야 하는데 그것은 경전을 연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인을 간구하며, 교회에 참석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엘마는 그 결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마음이 밝아지며,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엘마 32:28 참조) 이것이 간증의 시작이며, 그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누구든 알고자 하는 진지한 소망이 있다면 엘마가 32장에서 준 가르침에 따를 때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후 엘마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32장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너희가 이 빛을 맛보고 난 후 너희 지식은 완전하냐?”(엘마서 32:35)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엘마서 32:36 참조) 씨앗은 자랐지만 아직 묘목입니다. 엘마는 사람이 계속 신앙을 지킨다면 묘목이 나무로 자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생명의 나무입니다!(엘마서 32:41 참조) 이 나무는 그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비유되며 그분 아들의 낮추어 오심과 속죄의 희생으로 나타납니다.(니파이전서 11:9~33; 요한복음 3:16 참조)

엘마는 조람인들에게 나무가 그들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으면 그들은 나무의 열매를 취하고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엘마서 32:42~43 참조)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듭남, 즉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겪어 그들 영혼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신앙의 나무로 인해 자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엘마가 5장에서 제이라헤물라의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32장에서 조람인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셉 스미스가 스물넷의 나이에,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세부 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각각의 청중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본 교리 개요를 기록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엘마의 말씀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인 리하이와 니파이가 시현으로 본 니파이전서의 “생명 나무”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이 단지 니파이인들과 조람인들만이 아니라 수백, 수천 년 후의 독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물론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참됩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 주님의 번역자였습니다. 이 책은 수세기 전 고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물론경을 한번 더 읽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회복을 위한 주님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간증을 전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비록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물론경과 교회의 회복이 2천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만유의 회복”의 일부라는 점입니다.(사도행전 3:21)

주님의 계획 안에서 고대하며 바라봄

저는 오늘밤 엘마가 제이라헤물라에서 한 설교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2006년의 교회 독신들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눈으로 고대하며 바라”보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을 여러분의 얼굴에 지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도달해 있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와 향후 몇 년간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들의 영원한 의미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18세에서 30세까지의 나이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시기 중 하나라고 봅니다. 동시에 가장 보람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중대한 여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이 생뿐 아니라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교육, 직업, 결혼, 자녀 및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충실함에 관한 선택이 모두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내리는 여러분의 선택이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미칠 영향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은 특히 이 지상 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주님의 계획에서 지상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러한 목적이 여러분 앞에 놓인 중요한 결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더해짐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영의 자녀들을 천국 회의로 부르셨을 때 그분은 이제 지구를 창조할 때이며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더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아브라함 3:26) 우리는 첫째 지체가 전세이고 둘째 지체는 현세의 생활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지체를 지키고 지상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더하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상에 옴으로써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 면에서 향상됩니다. 첫째, 우리는 육신을 갖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지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지 또는 빛과 진리 안에서 발전합니다.(교리와 성약 93:36; 130:18~19 참조)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릴 기회를 얻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함께 살펴 봅시다.

육신

육신은 지상 생활에서 받는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입니다. 경전은 우리의 육신이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지상 생활 동안 우리 몸은 주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6:19~20 참조) 성신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인도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적인 죽음을 극복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얻고, 또 그것을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보이기 위하여 이 지상에 왔습니다. 행복의 위대한 원리가 육신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²

육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현세와 내세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육신의 성스러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 성스러운 창조의 능력. 첫 번째 신성한 목적은 창조의 성스러운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창조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자녀를 갖고, 영원한 가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상 생활 동안 이 능력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충실하고, 육신의 사용에 대해 주어진 계명을 지킨다면 그 창조의 능력은 부활할 때 회복됩니다. 경전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육신과 영이 불가분하게 결합될 때 온다고 했습니다.(교리와 성약 93:33) 그러나 “충만한 기쁨”은 부활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을 맺고 충실한 자들은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에 올라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누리고 “그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교리와 성약 131:2; 132:19) 현세에서 행복과 내세에서 “충만한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영원한 결혼 관계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2. 정신을 담는 그릇. 육신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3년 전 교회 교육 기구 위성 방송에서 이 개념을 가르치셨습니다.³ 사랑, 친절, 봉사 등의 많은 행위들을 하는데 육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을 축복합니다. 영의 인격체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육신은 그 활동의 폭을 확대합니다. 사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시현으로 영의 세계를 보았을 때 스미스 회장은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영이 자신들의 육체로부터 오래 떠나 있음을 속박으로 여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38:50)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부터 부활할 때까지 육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과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돌려 받을 것과 우리의 몸이 주는 자유를 고대하고, 갈망할 것입니다.

3. 빛을 담는 그릇. 육신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빛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모든 물체가 빛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렛의 동생은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이 돌들을 만지사 그것들[을] … 예비해 …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으리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이더서 3:4)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67)

복음 대로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4개월 전에 저는 가나의 아크라 성전에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의식 봉사자들은 모두 가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거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대로 사는 동안 빛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몸은 빛을 담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생활한다면 부활 때에 우리의 육신이 “너희 몸을 살리는 그 영광이 되리라. 해의 영광의 일부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는 너희는 그때 그와 똑 같은 것 곧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28~29)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만약 우리가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이 생에서 해의 왕국의 빛으로 소생하며, 부활 때에는 온전한 해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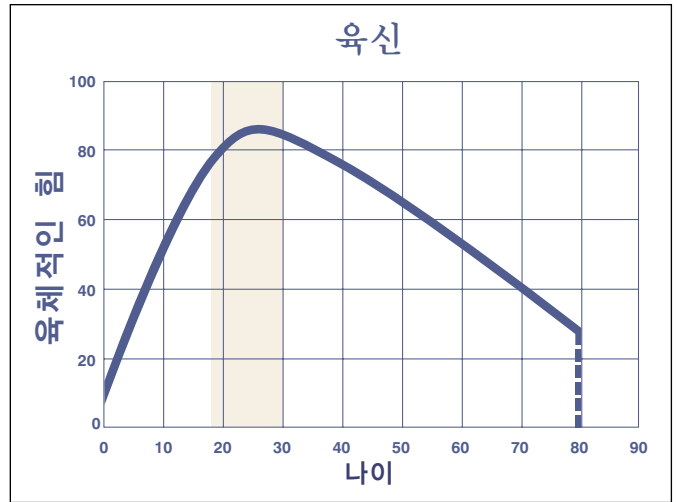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씀한 것처럼 “행복의 위대한 원리가 육신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신성한 생명의 능력이 있고, 정신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빛과 진리를 담는 능력을 키워 줍니다. 우리가 정숙한 복장을 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피하며 육신을 깨끗하고 흠 없이 지킴으로써 우리의 육신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육신의 또 한 가지 측면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의 육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의 주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물리적인 힘의 인생 주기와 그와 관련된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데 안목을 갖도록 해 줍니다.

지상 생활 동안의 육체적인 힘

화면에 보이는 표는 인간의 탄생에서 노년기까지의 근력 변화를 보여 주는 생리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가로축이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나이입니다. 세로축은 신체 근력의 단위입니다. 탄생 시점에서 이 선은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아기의 힘은 어른에 비해 작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체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하며 그래프는 가파르게 위로 올라갑니다. 인체의 물리적인 힘은 30세 정도에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남녀 모두의 근력이

30세 이후로 몸이 천천히 쇠퇴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리게 감소한다는 것이 표에 잘 나타납니다.⁴



여러분은 이 그래프에서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정점에 가깝거나 정점에 다가가는 중입니다. 오늘 모든 청중이 서른 이하이므로 여러분은 아직 힘의 증가만을 경험했다는 것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정상을 넘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때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분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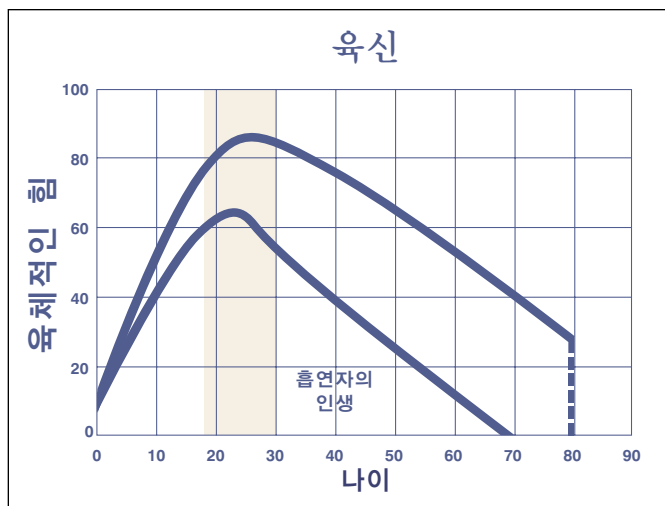
인생의 주요 결정 중 많은 것들이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힘의 절정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의 기분이며, 죽음은 먼 일이고 아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20대는 특히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가정을 돌보는데 필요한 힘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왜 그렇게 길고 느리게 쇠퇴하는가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배울 것들이 있을까요? 대답은 “네!” 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상에서 내려 오기 시작할 때 먼저 일어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필멸의 생명체라는 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죽음이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너무나 멀리 있어서 그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저 하향선의 뒤쪽에 있으며 육신이 천천히 쇠퇴하면서 오는 아픔과 통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제 눈 앞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인생은 짧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구주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분의 자비 이외에 제가 영적, 육체적 사망을 극복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또한 인생의 후반부에 주어지는 많은 축복의 근원이 18세에서 30세 사이에 내렸던 결정들에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들은 (1) 제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얼마 후에 베이트먼 자매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던 것, (2) 금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우리가 함께 학업을 마지겠다고 결정했던 것, (3) 그리고 그 후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로 결정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이 인생 후반부의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동안 필연적인 고통과 통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냐민 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것을 배울 때, 그러한 고통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버리도록 돕습니다. (모사이아 3:19) 인생 후반부의 통증과 고통은 겸손, 오래 참음의 의미, 인내심의 중요성, 친절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 주며 모든 것에 대한 중용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성한 성품입니다. 충실한 자들에게 천천히 진행되는 육신의 쇠퇴는 영을 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찍 몸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긴 수명을 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 후반기에 배우게 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갑의 담배는 수명을 10년에서 13년까지 단축합니다. 표에서 감소하는 근력을 보십시오. 약물은 수명을 더 많이 단축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경륜의 시대에 건강의 율법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주님의 속죄와 부활은 육신의 중요성을 확인해 줍니다. 지상 생활과 영원을 통한 육신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지 또는 빛과 진리

지상 생활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예지, 또는 빛과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93:36 참조) 사전에서 예지는 “지식을 얻고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⁵ 하지만 주님께서 내리신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예지에 대한 그분의 정의에는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지식을 얻고 적용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그 지식을 의롭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빛과 진리는 저 악한 자를 버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93:37)

빛은 신성의 한 요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라”고 했습니다. (요한1서 1:5) 예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12) 복음은 빛의 메시지입니다. (교리와 성약 45:9 참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지상 생활을 하는 주요 목적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빛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상은 영광, 또는 빛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3:25~26 참조) 교리와 성약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50:24)

주님께서 두 가지 영적인 빛의 근원을 제공하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그가 “선악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모로나이서 7:15~16; 또한 요한복음 1:9; 교리와 성약 84:46 참조) 두 번째 근원은 성신의 은사로 교회의 회원들에게 주어집니다. 성신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강화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도록 하며, 다른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세 가지 영적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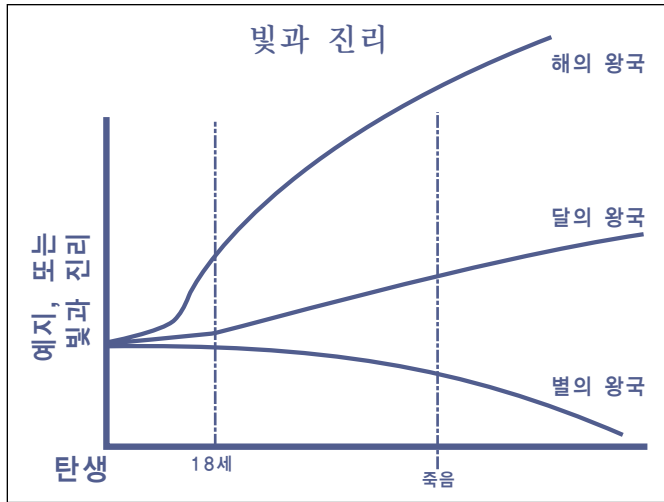
화면의 표는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길을 보여 줍니다. 위쪽은 해의 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미 아시듯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45:57)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 침례를 받은 자들이니 ...”

“... 안수으로써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의 충만함과 그의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교리와 성약 76:51~52, 56)

이 사람들은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 모두를 통해 배웁니다. 교회의 젊은 회원들에게서 이 해의 왕국의 그래프가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침례와 수년 동안에 걸친 성신의 인도를 통해 우리는 큰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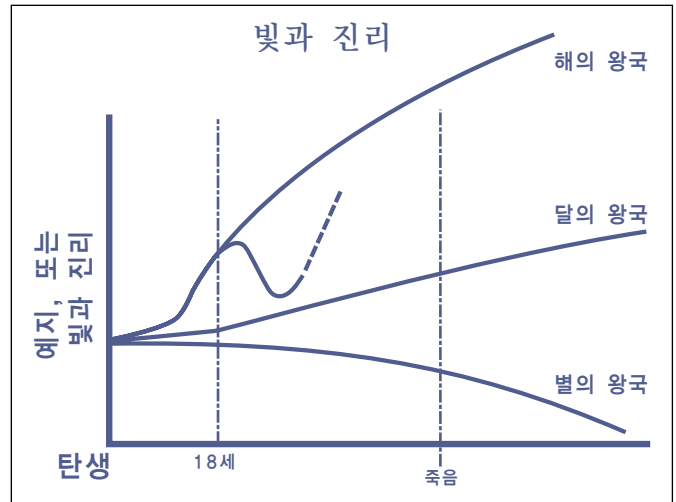
두 번째 길은 달의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길에도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만 포물선이 원하는 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지만 성신을 통해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나 세상의 계교로 눈이 먼 자들이고] ... 그의 영광을 받으나 그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교리와 성약 76:75~76)

세 번째, 또는 가장 아래의 길은 별의 왕국으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성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속이고 흠치고 간음하는 자이며 거짓을 사랑하고 지어내는 자들입니다.(교리와 성약 76:103 참조) 비록 그들이 부활할 때 별의 영광을 받기는 하겠으나 이들은 지상 생활 동안 빛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디모데전서4:2) 그리스도의 빛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

다음 표는 죄의 결과들을 보여 줍니다. 어떤 사람이 해의 영광의 길을 걷다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 결과는 빛을 잃는 것입니다.⁶ 악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신이 떠나게 하며

포물선이 낮아지도록 만듭니다. 더 높은 길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다고 합시다. 진로를 바꾸어 더 높은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를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상대방과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후회를 표시하고, 지갑을 돌려 주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은 더 높은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주님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통해 죄의 결과를 없애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제 좀 더 심각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사통하여 서로의 순결을 빼앗았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잃어버리는 빛은 지갑을 훔쳤을 때보다 훨씬 큼니다. 이 젊은이들이 해의 왕국의 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여자에게 순결을 되돌려줄 수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덕성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입니다. 그분만이 이 젊은이들의 덕성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분명 이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그 이후로 같은 일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감독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님과 관계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신뢰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다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과 신앙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신앙과 계명을 지키는 부지런함으로

속죄의 열매를 취하는 동안 성신께서 돌아 오셔서 그들을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해의 왕국의 길에 머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존중하고 죄를 피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통해 얻게 되는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그 빛은 장차 올 세상에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가족

지상 생활의 세 번째 위대한 목적은 결혼을 해서 영원한 가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⁷ 최근 가족에 대한 전세계 위성 방송에서 엘 톰 페리 장로님은 가족 지도서 소책자에서 다음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 단위 조직이며 ... 현세 및 내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다.”⁸

조셉 스미스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현세에 있는 동안 성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고,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죽은 후에 증식을 그치게 될 것이며, 부활한 후에는 어떠한 자녀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⁹ 가족 선언문은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¹⁰

왜 결혼과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최근 전세계 위성 방송에서 두 가지 교리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남성과 여성에게 있는 영의 본질은 서로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주며,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승영을 향해 함께 발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¹¹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남자와 여자가 영생을 함께 상속받는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베드로전서 3:7 참조) 또한 바울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둘째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는 이 세상에 자녀를 데려와야 하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¹²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의로운 결혼은 남녀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가족은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중요한 본보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자기 존중과 정체성은 그들의 부모가 서로에 대해, 또 자녀에 대해 가지는 사랑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가정과 가족은 어린이들이 사랑의 유대 관계를 경험하고, 덕성과 정직, 그리고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이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조직입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일시적인 공동체, 단기간의 관계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목적이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고 따라서 종종 관계를 종식시킵니다. 더 많은 성인들이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식 결혼 없이 함께 동거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관계는 가장 빨리 끝이 납니다.

세 가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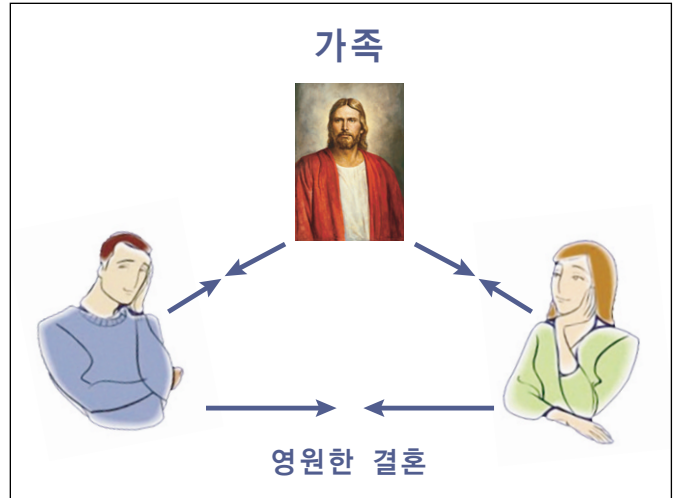
다음의 표는 결혼하지 않음, 법적인 결혼 그리고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 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서약이 없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지만 따로 서 있습니다. 공유하는 약속은 제한되어 있고 둘 사이의 공식적 결속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인 만족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서약이 없으므로 그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안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깨지기 쉽고 대부분의 경우 그 기간은 항상 짧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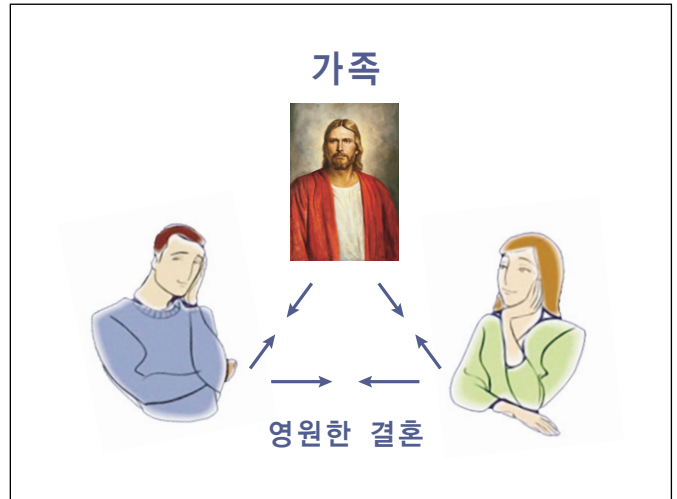
두 번째 표는 법적인 결혼입니다. 선과 화살표들은 결혼 서약의 결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기는 약속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죽음이 둘을 갈라 놓을 때까지 서로를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서약은 법적 권한에 의해 인정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의도와 그들이 맺은 약속으로 인해 일정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불행하게도 점점 많은 결혼이 그러한 약속들이 깨지면서 파경을 맞습니다. 많은 경우 깨진 약속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결핍의 상태에 빠뜨립니다.



세 번째 그림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보여 줍니다. 이 관계는 남자와 여자와 주님 사이의 성스러운 성약을 의해 성립됩니다. 여자는 남자와, 남자는 여자와, 그리고 그 둘은 함께 주님과 성약을 맺습니다. 화살표는 그들 사이에 맺은 성약을 나타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녀를 존중하고 돌볼 것이며, 또한 그들 사이에 다른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것임을 성약합니다. "다른 누구"에는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이 포함되며 다른 여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또한 주님에게 복음대로 살고 그녀를 마땅히 존중하여 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자도 비슷한 약속을 남자에게, 그 후 주님에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 이들의 충실함에 따른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삼각형의 관계는 단순한 일직선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잠재적으로 영원하게 될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결혼에서 신뢰를 높이고 결속을 강화하며, 이 관계에 더 큰 힘을 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십시오. 결혼에 담긴 비밀은 복음대로 생활하여 이 삼각형을 영원한 원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은 지상 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세 가지 은사 중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이 가족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성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이 내려야 합니다. 성신이 대신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신의 책임이 아니며,

그분은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빼앗아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신은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현세에서의 위대한 이 세 가지 은사를 기억하십시오. 육신, 더해지는 빛, 그리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은사들은 성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인생의 시기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 세 가지 위대한 은사를 모두 온전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

1. 고든 비 헝클리,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2. 선지자의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sel. 조셉 필딩 스미스 (1976년), 170쪽.
3. 보이드 케이 팩커, *The Instrument of Your Mind and the Foundation of Your Character* (교회 교육 기구,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노변의 모임, 2003년 2월 2일) 참조.
4. William. D. McArdle, Frank. I. Ketch and Victor. L. Ketch, *Essentials of Exercise Physiology*, 2nd Ed. (2000년), 588쪽 참조.
5.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69년), “intelligence” 682쪽.
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64쪽; 니파이후서 28:30 참조.
7. 고든 비 헝클리,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기쁘게 여김,”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6월 21일, 22쪽 참조.
8. “가족의 조직과 목적”, *가족 지도서* (2001년), 1쪽.
9.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84쪽.
10. “세상에 전하는 가족 선언문”,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01쪽
1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결혼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입니다”,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가족을 부양함*, 2006년 2월 11일, 3쪽.
12. 베드나, “결혼은 필수적입니다”, 4쪽.